



[단편소설]영원한 화자

저자 (Authors)	김애란
출처 (Source)	실천문학 , 2004.8, 118-135 (18 pages) silcheon munhak , 2004.8, 118-135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실천문학사 silcheon munhak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554695
APA Style	김애란 (2004). [단편소설]영원한 화자. 실천문학, 118-135.
이용정보 (Accessed)	경상대학교 203.255.***.30 2017/12/24 23: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영원한 화자

김애란

1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기 위해 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 그러니 그것이 내 이름인 것이 이상하여 자꾸만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냉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허영심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냉소적이고 허영심도 많지만 어쨌든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알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허나가끔은 알 수 없는 쓰다듬에 숨죽이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줍고 다니는 사람, 나는 나의 수집가, 나는 나를 찢푸린 눈으로 보는 나에게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호프집에서 오줌

보를 붙든 채 상체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앞사람이나 옆사람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불쾌해지는 사람이다.

어쩌면 '나는 하루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도 나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일 오늘 나의 가장 큰 일과가 운동화를 빼는 일이라면 나는 정말 그날 운동화만 빼는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지만 앉아서도 누워서도 온종일 '오늘 운동화를 빨아야 되는데 · '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누군가 내 방에 와 '책이 많으시네요'라고 한마디 해주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농담을 좋아하지만 재치 있는 사람을 보면 적의를 품는 사람. 나는 때론 돈 만 원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이며, 은행 잔고 앞에서 항상 뒷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낯선 이들을 웃기고 난 뒤 안도하는 사람. 나는 나의 편견을 아끼는 사람, 나는 그 편견을 얻기까지 달려갔다 다치고 온 길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은 수난자들의 질문입니다'라는 알료사의 말에 밑줄 긋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봐 무릎이 떨리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 깔보는 것, 묻는 것이다. 나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 결눈질하는 것, 눈감아주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혈액형 혹은 별자리에 대해, 우리가 무수히 침을 발라가며 넘겼던 해설들에 대해서도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잔뜩 남겨진 자이다.

나는 이것저것을 물어모으지만 당신은 언제나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말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관심 없는 이성의 고백처럼 언제나 조금씩 지루해진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대답하기 위해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 돌리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내 이름인 것이 이상하여 자꾸만 당신의 이름을 불리보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머감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속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유머감이 있고 속물적이지만 어쨌든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묻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허나 가끔은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철렁이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첫사랑. . . 나는 내가 읽지 않은 필독도서, 나는 나의 죄인 적 없으나 벌이 된 사람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 대화창 앞에서 오줌보를 붙든 채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러나 내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결국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나는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식으로도 나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당신보다 당신의 절망을 경청하고 있는 나의 예의바름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례한 사람이다. 나는 오만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

두가 좋아하는 그림 앞에서 내가 그동안 그것들을 ‘그다지’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모르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끄덕이는 사람, 나는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수다쟁이, 나는 나의 이야기,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나의 각주들이다.

하어. 스스로를 책(責)하는 것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었다. 하나의 자부. 하나의 자만. 나는 당신에게 ‘진짜’인 것 같았고,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뿌듯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것은 언제나 잘난 척보다 나빴다.

그날도 그랬던가? 그날도 나는 신중하게 옷을 고르는 여자처럼 당신 앞에서 말을 고르고 있었던가? 내가 하루에 한 가지의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맞다면, 아마 그날도 나는 온종일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 일이 비록 서비스센터에 핸드폰 수리를 맡기거나 첫 술통에 낀 물이끼를 닦는 일이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2

지하철은 이른한 오후의 아랫배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내 천(川) 자가 들어간 도시의 이름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지하철역 사람들은 오래 전에도, 더 오래전에도 그곳에 서 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

었다. 그것은 처음엔 무척 생경한 것이었는데, 모두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속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지하철이 막 출발하기 직전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도애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잡혔을 때 대꾸 않고 지나가는 사람인가, 웃으면서 사양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구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강남콩이 들어간 밥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의 목록들을 이미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지하철은 그냥 보내야 되는 대상이었다. 허나 막 단헐락 말락 하는 문들의 유혹은 대단한 것이어서 가끔은 나도 모르게 무작정, 혹은 엉겁결에 뛰어들게 만든다.

지하철 안은 한적했다. 나는 자꾸만 박살나고 있는 햇빛 바깥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스커트 아래로 완강하게 모아진 당신의 무릎, 줄음 아래로 푹 볼거져나온 당신이 지퍼, 처음 샀을 때 아따 굉장하 좋아했을 것 같은 당신의 나이키, 오소소 숨덜 돋은 껌불 아래로 부러 일으켜 숨을 내쉬는 당신의 애인, 신반 위 구겨진 종이 가방을 세속 신경 쓰는 당신의 눈동자, 그리고 몇 차 걸리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저기 저 사관생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웅크려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당신이 왜 바지를 가슴까지 올려 입는지, 당신이 왜 그렇게 다리를 크게 벌리고 앉는지, 왜 그렇게 검을 찢고, 왜 그런 농담에 웃고, 왜 그런 책을 읽는지 못마땅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란을 죽이는 이유도 결국 그런 자은 것들 때문일지도 몰랐다.

또 한 가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는 이제 사람을 표 안 나게 흘깃거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저기 저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그 친구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혹은 “개가 그러고 다녀도 집이 잘산다며?”라는 수군거림을 듣는 사람, 또는 “자넨 너무 융통성이 없군”이라든가 “저 사람 일등으로 들어왔다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또 누군가의 빈말에 기뻐하는 사람이거나, 진담에 격분하는 사람일 것이다. 당신은 “그래도 넌 좋겠다”라는 말에 속상해하는 사람이거나, “그 친구 사람 정말 팬찮아”라는 말에 솔깃해하는 사람일 것이다. 당신은 무겁거나 가벼운 사람. 당신은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먹는 사람, 당신은 소문 때문에 어딘가를 떠나야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자주 빈정대는 사람. 당신은 버스나 화장실의 맨 끝 칸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은 아내를 때리는 사람, 당신은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 당신은 내가 언제가도 한 번은 만났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잠시 후 짧은 정차와 함께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거짓말을 할 때 코를 만졌던 옛날 사람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니 어떤 우연들은 11시 11분처럼, 혹은 4시 44분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날 그 시간, 그 간에 당신이 앉아 있었다는 우연. 순전히 그때 시계를 본 사람의 몫인 행운, 혹은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11분은 매일 지나가는 시간이므로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은 사조조차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가우뿔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어른이 되고 난 이후로, 특히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빨리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녀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이 불편했다. 잠시 후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아무개 아니니?”

그때 나는 정말 아무개였던 나머지 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버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아무개 맞지? 몰라보겠다, 애”라고 말하며 내 옆 자리에 앉았다. 연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갠조 플라워를 뿌린 그녀는 화사했고, 어딘지 모르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사람을 부딘스럽게 만드는 선량함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더라……?’ 내가 미간을 찌푸리는 동안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핸드백을 뒤졌다. “이게 열매만이야. 기지배.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녀는 아랫입술을 뽀로퐁 내민 뒤 콧잔등을 찡그리며 원망 어린, 귀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자신이 언제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이 그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릴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에게는 먼저 말을 걸어오는 동창들의 공통점 중 하나인 이상한 자신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수선스럽게 핸드백을 뒤지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지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름 옆에는 조그맣게 ‘웹 디자이너’라는 말이 씌어져 있었다. 나는 내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눈치채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사람이라고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아이였거나, 아주 말썽쟁이였던 아이, 둘 중의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무수한 아이들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나는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게 크게 생색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다면 그녀가 좋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 일단 상대를 낮추어

놓고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엉거주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게, 요새 통 연락하는 애들이 없어서…” 나는 그녀의 반짝이는 구릿빛 종아리에 시선을 두며 말했다. 그녀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눈망울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내겐 명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활달해지더니, 괜찮다며, 동창들의 소식을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 지은이 일지? 우리 3학년 때 1번 말이야. 개 작년에 중국 남자랑 결혼했다고 하더라. 근데 글썄 그 남자가 그렇게 갑부래. 너도 알지? 중국에서 부자는 진짜 부자라잖아.” 나는 지은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지은이가 키 작고, 매일 지각했던 애 맞던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래! 우리 그때 지각하는 애들 벌금 모아서 연말에 다같이 짜장면 사 먹었었잖아”라고 반응했다. 나는 매끄러운 그녀의 종아리에 시선을 둔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스프레이형 ‘에어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명화, 명화 기억나지? 개 코 새운 거 알아?” 나는 명화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 예뻐졌잖네?” “말도 마. 고치고도 그렇게 안 예쁜 엔 처음 본다.” 그녀는 은근히 ‘너도 동의하지?’라는 공범자의 사인을 보내며 크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어색하게 그녀를 따라 웃었다. 나는 그녀가 동창들의 안부를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 조금 놀랐다. 곧이어 그녀는 이웃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녀의 첫사랑이 자신에게 보름을 팔러 왔던 것에 대해, 고등학교 때 담임이 얼마나 변태적이었던가에 대해, 학교 앞 구멍가게 아들이 얼마나 해사했었던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기도 했다. 그녀의 입술 주위에는 침 찌꺼기가 둥근 테두리를 그리며 하얗게 붙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맞장구를 치며 몇 개의 단서들로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얼마 후, 어색한 침묵

이 흘렀다. 오후의 지하철 안은 왠지 나른했고, 햇빛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박살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다. 그녀는 몇 정거장 후 내릴 거라고 말했다. 다시 그녀와 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반가움에 무엇이든 말해보라는 듯이 내게 상체를 기울였다. 나는 마른침을 한 번 삼킨 뒤 그녀에게 말했다. “그 스타킹 어디서 샀니?”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아, 이거?”라고 말한 뒤 에어 스타킹의 장점과 각 홈쇼핑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보다는 그녀의 입술 주위에 허얇게 붙은 침 찌꺼기가 계속 신경 쓰였다. 얼마 후 나는 그녀에게 일이 재미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런대로”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응, 벤처기업 다녀”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혼자 사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우리는 다시 한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명함에 주소가 있으니 자신의 미니홈피에 언제 한번 들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동창들의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혹은 서로가 슬며시 왔다 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더 열심히 자기 삶을 전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윤택한 사진 아래로는 온갖 사교적인 답글이 달리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동창회를 열고 있었다.

한편 저편에선 색안경을 낀 사내가 트로트풍의 <너 같은 죄인 살라신>을 틀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늘 겪는 일이면서도 우리는 한 번 더 의연해지기 위해 조금씩 긴장했다. 그녀는 어느새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쳤던 학년주임 홍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선성으로 들으며 내 앞에 앉은 정복 차림의 사관생도가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

을 보고 있었다. 그는 지갑을 찾으려 몸 이곳저곳을 황급하게 더듬다가 생각난 듯 007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앵벌이 사내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고 사관생도는 007가방을 열고 있었다. 사관생도는 무거운지 가방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은 채 허리를 굽혀 지갑을 찾았다. 나는 재빨리, 그러나 표 안 나게 사관생도의 가방 안을 훑었다. “그게 다 콤플렉스야.” “응? 뭐?” “확년주임 말이야.” “어? 응.” 사관생도는 지갑을 찾느라 한참 애를 쓰더니 그 가방 안에서 또 작은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고 마침내 지갑을 꺼냈다. 언제 왔는지 색안경을 쓴 앵벌이 사내는 사관생도 앞에 압전히 서 있었다. “그런데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녀는 숨을 크게 한 번 몰아쉬더니 말했다. “응? 내가 어쨌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힘겹게 지갑을 꺼낸 사관생도가 어서 적선하기를 기다리며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사관생도는 지갑을 열고 있었다 “왜, 너 그때 되게 억척스러웠었잖아.” 순간, 사관생도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내기?” 사관생도의 지갑 안에는 온통 푸룻푸룻한 만 원짜리 지폐뿐이었다. “그래! 너 뭐든지 잘했잖아.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난 아침 조식 때마다 네 이름 들은 기억밖에 안 나는 걸!” 사관생도는 장백해진 얼굴로 지갑의 다른 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앵벌이 사내는 사관생도 앞에 계속 버티고 서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관생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뭘... ” 나는 내가 정말 그렇게 뭐든지 열심히 했었던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 반장까지 했잖아.” 그녀는 내 반응을 유심히 살펴며 의뭉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참, 너 생각나? 그때 우리 야자 같이 땡땡이치고 시내로 술 마시러 갔었잖아.” 순간 나는 이지혜가 누군지 생각났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때 너 잠 착했는데.” 그때까지 망설이고 있던 사관생도는 다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선하지 않고, 지갑을 닫고, 그것을 작은 가방 속에 넣고, 작은 가방의 지퍼

를 닫고, 작은 가방을 007가방에 넣은 뒤, 007가방의 버튼을 닫고 무릎 위에 얹어놓는 일을 신중한 숨씨로 되풀이했다. 나는 갑자기 그녀와 같이 앉아 있는 게 불쾌해 벌떡 일어났다. “내리게?” 나는 나도 모르게 “어? 아니”라고 대답한 뒤 자리에 도로 앉았다. 그녀는 정말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난 내릴 건데.” 그때까지도 계속 사관생도 앞에 서 있던 앵벌이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저편으로 느리게 걸어갔다. 그녀는 지하철 문 앞에 곧은 자세로 서서 가을 동창회 때 한 번 더 만나자고 말했다. 선명여고는 은행나무가 예쁘지 않냐고도 지하철이 멈추고, 그녀는 막 출입구를 나가려고 하기 전 잊은 것이 있다는 듯 내게 물었다.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이었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출입구는 닫혔고, 앵벌이의 찬송가 소리 역시 다음 칸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이었어? 어디 가는 길이었던가? 그렇지,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

나는 이내 서무룩해졌다. 동창들을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 더욱이 내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절을 보낸 시기의 동창들을 만날 때면, 단지 내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미워지곤 했다. 나와 인사하며, 웃고, 안부를 물으며 속으로는 그때를 떠올리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내가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시절의 동창들을 만날 때만 생기는 기분은 아니었다. 예전에 나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그녀는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섯 살쯤으로 보이는 아들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개 아니니?”라고 축농증 섞인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고, 나는 그때 역시 내가 아무개인 까닭

에 아무개라는 말에 예의 없이 놀라고 말았다. 그녀 앞에서 나는 다시 친절했던 상위권 학생으로 돌아가,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기가 예쁘다는 칭찬을 해줬다. 얼마 후, 처음의 반가움과 달리 그녀는 할말이 딱히 없는 듯했고, 우리는 다른 동창을, 또 다른 동창을 만나도 물어보는 것들을 서로에게 물어봤다. 그러고 나서도 할말이 없자 나는 애써 그녀와 친했던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내며 안부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녀는 반색을 하며 “미영이? 미영이도 지금 그 동네 있어. 전화번호 줄까? 메모지 있니?”라고 물었다. 나는 미영이와 친한 건 그녀였는데 왜 내게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에 당황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포대기에서 흘러내리는 아기를 자주 들춰 올리며, 한 손으로는 힘겹게 가방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낸 뒤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때 나는 아직도 나를 중학교 때 모습으로 대하는 그녀의 순진한 친절함이 이상하게 슬프고 그 슬픔이 또 범속하게 느껴져 갑갑했다. 나는 그녀에게 웬지 미안하면서도, 선뜻 나서서 살갑게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하지 못했다. 조금 전 이지혜만 해도 그랬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작은 비밀을 털어놓으며 상대방의 더 큰 비밀을 알아내는 친구였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그런 아이가 우리 반에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지혜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내 자리로 와 몇 마디씩 건네기 시작했고, 점점 앉았다 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힘내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던 것 같고 어느 날인가는 그녀 말대로 어떤 호기였는지 술을 먹으러 나가 기까지 했던 것이다. 나는 웬지 나도 그녀에게 뭔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당시 부족 친구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던 마음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나와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갔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도시락을 혼자 먹어야 했었다. 대수롭지 않은 일 같

지만, 도시락을 혼자 먹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알 것이다. 그것의 고통은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인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는 데 있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이었는데 그녀가 ‘같이 술 마셨던’이라는 말을 꺼내자 비로소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것이었다.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일을 만든 사람 이름이 이지혜였다는 것도 말이다. 물론 그녀는 그런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도시락을 혼자 먹은 것은 그녀가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의 말에 고개 끄덕여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동창회에 나갈 일은 없을뿐더러, 오늘처럼 그녀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1시 11분은 지났고, 나는 이제 11시 12분에 대해서도, 11시 13분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나는 줄곧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여기 없는 사람. 지금 그와 지하철 창문에 비스듬히 머리를 뉘인 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당신이 다리를 그렇게 크게 벌리고 앉는 모습도, 당신이 그렇게 검을 찢는 모습도 훨씬 너그럽게 바라봤을지도 몰랐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안았고, 어떻게 활귀였는가에 대해—우리가 어떻게 다시 껴안고, 어떻게 다시 떨어냈는가에 대해서는—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들, 당신이 젓가락을 잡았던 방식이나, 당신이 술안주로 배어 물고 내려놓은 오이에 난 이빨 자국, 담배를 빨어들일 때 들어가던 불우물의 깊이

나, 기이하게 생겼던 엄지발가락 모양, 내가 반해버린 남자 배우를 무시할 때 지었던 표정이나, 당신이 셔츠의 몇 번째 단추까지만 채웠었던가에 관한 것들만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아주 작은 것들 때문이듯,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비슷할지 몰랐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하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오래전 꼭 지금 같은 날씨에, 꼭 지금 같은 시간에 당신과 지하철역까지 걸어오며 했던 놀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당신과 나는 어렸고, 땀벌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지하철역을 찾고 있었다. 더위 때문에 혼한 우스갯소리조차 하지 않는 내 눈치를 보고 있던 그는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했다. 종목은 ‘무엇무엇 했으면 좋겠다’ 놀이. 내가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그냥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말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지쳐 있던 내가 그러자고 하자, 그는 갑자기 신이 나서 말했다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는 우선 담배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하루 용돈이 2만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영어회화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에게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햇볕에다 이불을 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우러러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팬찮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용실에서 샴푸만 힌두 시간쯤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는 내가 고부가가치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물 줄 아는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치열이 발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춤을 잘 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평생 집세나 받아먹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참 후 그는 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참 후 나도 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참 후 그는 나와 잘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참 후 나도 그와 잘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머리 위로는 흉조처럼 지하철이 긴 선을 그으며 지나가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래도록 서 있었다. 낯선 길들은 언제나 더 멀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나와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너무 우울한 나머지 한밤중 길에서 외계인을 만난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자꾸만 내가 누군지 잊어먹어 갔다. 그래서 나는 자꾸 고3 때 반장이 되거나, 대학 때 아르바이트생이 되거나, 아랫방 처녀가 되거나, 착한 막내가 되거나, 이동통신사 고객이 되거나, 뒷좌석의 시야를 가리는 앞좌석의 관객이 되거나, 예의바른 후배가 되거나, 우물쭈물하는 수습 직원이 되거나, 날짜를 잘 어기는 납세자가 되거나, 아는 여자가 되거나, 맥줏집 단골이 되거나, 신중한 소비자가 되거나, 말 잘하는 네티즌이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갔다. 그리하여 나는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연락도 없이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열차 내에선,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이니 승객 여러분들은 모두 하차해주시기 바라며 가실 땐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종착역에서 내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을 들을 때면 번번이 뭔가 거절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아무것도 두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뭔가 잊고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터널 속으로 사라져가는 열차를 끝까지 바라보며 시계를 봤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지혜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었다. 가을 동창회 때 보자고 선명여고는 은행나무가 예쁘지 않느냐던 말. 불현듯 나는 내가 졸업한 학교는 선명여고가 아니라 선정여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정여고는 은행이 아니라 목련이 장관이라는 것도. 나는 갑자기 뒤돌아서 막 열차가 빠져나간 터널 구멍을 목미르게, 한참동안 바라봤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나 만났다고 믿고 있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이다.

결국 그날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그 긴 노선을 되돌아오며 내가 ‘무엇무엇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며 멍멍하게 앉아 있었다.

3

그리하여, 한 번 더, 그리하여 여전히 . . .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 자주 상상한다. 나는 나에게서 당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아무리 나라고 해도 나를 상상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이 이상하여 자꾸만 당신의 상상을 빌려오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자주 상상한다. 저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달변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열등감도 많고 달변가이지만 어쨌든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밀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허나 가끔은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는 사람이다

나는 긴 주소지, 나는 제목만 따라 부르는 팝송, 나는 사진처럼 언제나 조금씩 잘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했는가보다,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무엇에나 쉽게 감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나는 뻔한 사람, 그러나 당신이 뻔하다는 사실에 불쾌해지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저것을 긁어모이지만 당신은 언제나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말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관심 없는 이성의 고백처럼 언제나 조금씩 지루해진다.

나는 기다리기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 나는 변명만 하고 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 나는 내가 경멸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던 사람, 나는 아르바이트하느라 찢찢매는 시간에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던 사람, 나는 당신의 고통을 소문낸 사람, 나는 어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나는 진동칫솔과 에어브라를 갖고 싶어했던 사람, 나는 오래전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던 사람. 나는 여전히 진동칫솔이 없는 사람. 나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 나는 세금을 받으러 온 주인의 기척이 들리면 집에 없는 척하는 사람, 나는 점점 여

기 없는 사람인 척하는 사람, 나는 여기 없는 척하느라 당신이 불려도 대답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때, 사실 당신 근처까지 갔던 사람 . . . 하여 나는 이 많은 말들 속에서도 당신이 끝끝내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해받고 싶은 사람, 그러나 당신의 맨얼굴을 보고는 뒷걸음치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랑이 ‘나는 . . .’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나는 . . .’이라고 말한 뒤 주저앉는 사람. 나는 한 번 더 ‘나는 . . .’이라고 말한 뒤 주저앉는 사람.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 그리하여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사람이다. 하여, 우리는 흐르는 물에 손을 빼이지 않고도 칼을 씻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